

“전동화 분야 등 제동시스템 경쟁력 확보… 글로벌 톱3 도약”

현대모비스 파리모터쇼 간담회

감속기 등 품질·완성도 강조
“코어기술 글로벌 현지화 집중
점유율 상승하는 시기 올 것”

“제품 품질과 완성도를 앞세워 제동 시스템 분야에서 글로벌 톱3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 파리모터쇼에서 차별화된 제품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면서 품질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유럽 지역에서 배터리시스템 등 10개의 핵심 기술을 공개하고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수주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승열 현대모비스 글로벌영업1실 상무와 이형근 EU 글로벌영업실장은 16일(현지시간) 파리모터쇼 현대모비스 부스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향후 전략을 공유



현대모비스 이형근 EU 글로벌영업실장(왼쪽), 양승열 현대모비스 글로벌영업1실 상무가 16일(현지시간) 파리모터쇼 부스에서 한국자동차기자협회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했다.

올해 첫 파리모터쇼 참가와 관련해 양승열 상무는 “현대모비스는 오래전부터 글로벌 OE 사업을 추진해왔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했다”며 “전동화와 관련된 기술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다. 북미는 물론 유럽 시장도 중요한 만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파리모터쇼를 통해 유럽 브랜드들과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텔란티스와 르노 등 유럽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부스를 다녀갔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 전시장에는 3세대 전자 드라이브 유닛(EDU)을 전시했다. 모터와 감속기, 인버터를 통합해 B-D 세그먼트 SUV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다. 또 22kW 지능형 충전 제어 유닛(ICCU)도 진일보한 기술을 자랑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1kW의 2배에 달하는 성능을 갖춘 모델로 충전기와 DC 컨버터를 통합한 제품이다. 또 전기차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감성적인 요소를 추가할 수 있는 ‘벤티쿨

러’ 조명 기술과 자율주행 통합 제어기 등도 전시됐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폭스바겐으로부터 대규모 전기차 부품 수주에 성공한 바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구소에서 현지 맞춤형 전략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실장은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시스템(BSA)을 수주했다”며 “납품을 위해 폭스바겐 공장이 있는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26년 양산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개발한 코어 기술을 현지 제조사가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국내와 해외에 총 7곳의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의 차별성도 언급했다.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부품 제조 경쟁력도 자국 자동차 업체와 함께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상태다.

양 상무는 “우리 제품의 품질과 완성도 등이 중국에 비해 더 높다. 결과적으

로 기술력으로 봤을 때 중국 업체들에 비해 좀 더 앞서가고 있다”며 “이같은 경쟁력은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 수주를 할 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기아 전기차 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해외 업체들이 현대차·기아를 벤치마킹 하면서 주요 부품이 현대모비스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전동화 준비를 꾸준히 준비한 만큼 점유율이 상승하는 업사이클 시기가 올 것”이라며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동 분야의 경우 글로벌 톱3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파리모터쇼 부스 전경. /현대모비스

LG화학, 기능성 화장품 원료시장 진출 가속화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3HP 적용
“지속가능한 뷰티 첫 걸음 될 것”

LG화학이 식물성 오일에서 유래한 친환경 원료로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

LG화학은 100% 바이오 기반의 3HP(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를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최초 적용하고 관련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3HP는 식물성 원료의 미생물 발효 공정으로 생산되는 친환경 바이오 원료다. 적용 분야와 확장성이 무궁무진해 전 세계적으로 3HP에 대한 기술 개발 시도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상용·상업화된 사례는 없다.

3HP는 비임상실험 결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양한 효능을 보일 것으로 기



대되는 가운데, LG화학은 최근 화장품 소재 및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대봉엘에스와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검증하기로 했다.

대봉엘에스는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 생산, 판매 및 임상센터까지의 통합 체계를 보유한 국내 유일 업체로 현재 국내외 1000여개 화장품 업체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양사는 3HP를 원료로 사용하기 적합한 기능성 화장품 제품군을 선정해 제형 개발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임상 평가를 통한 효능 검증을 완료하기로 했다.

LG화학은 3HP 균주, 발효, 정제 기

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으며, 비임상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3HP를 원료로 한 다양한 화장품 조성물 특허 출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LG화학은 기능성 화장품 원료 분야로 신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양사는 향후 3HP 임상 효능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출시 여부 및 적용 제품 확장 등의 추가 협력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사진)은 “양사의 협력은 지속가능한 뷰티 원료를 개발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일 것”이라며,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적용 분야가 확대될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 ‘더 뉴 캐스퍼’ 출시… PMSA 눈길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ISLA·크루즈 컨트롤 기본 탑재

현대자동차가 엔트리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3년만에 출시한다.

현대차는 17일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캐스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출시 이후 약 3년만에 선보이는 모델로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추가했다. 특히 캐스퍼 전동화 모델의 경우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PMSA)’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더 뉴 캐스퍼 전면부는 발광다이오드(LED) 프로젝션 헤드램프를 적용한 블랙 하이그로시 라디에이터 그릴과 날렵하고 입체감 있는 프론트 범퍼·스키드 플레이트가 어우러져 단단한 인상으로 거듭났다. 측면부는 신규 17인치 알루미늄 휠과 후면부의 새롭게 디자인된 리어 램프 등을 통해 캐스퍼의 세련미를



더 뉴 캐스퍼. /현대차

부각했다.

특히 이번 모델은 고객 선호도 높은 안전·편의 사양을 대폭 보강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와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으로 탑재했다. 동급 모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전방 충돌방지 보조(FC 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을 추가로 구성했다. 이 외에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 주행 중 진동 저감을 위한 보강 등도 이뤄졌다.

/양승열 기자

삼성전자, ‘24기가비트 GDDR7 D램’ 개발

12나노급 미세공정 적용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12나노급 ‘24기가비트(Gb) GDDR7D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24Gb GDDR7 D램은 현존 업계 최고 사양이다. 이번 제품은 24Gb의 고용량과 40Gbps 이상의 속도를 갖췄으며 전자 대비 용량, 성능, 전력 효율이 모두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에 12나노급 미세 공정을 적용해 동일한 패키지 크기에 셀 집적도를 높였고, 전자 대비 50% 향상된 용량을 구현했다.



24Gb GDDR7 D램 제품 이미지. /삼성전자

또 ‘PAM3 신호 방식’을 통해 그래픽 D램 중 업계 최고 속도인 40Gbps를 구현했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최대 42.5 Gbps까지의 성능을 낸다.

PC, 게임 콘솔 등 기존 그래픽 D램의 응용처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워크스테이션,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제품이 필요한 분야까지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부터 저전력 특성이 중요한 모바일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도입해 전력 효율을 30% 이상 크게 개선했다.

제품 내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이는 ‘클록 콘트롤 제어 기술’과 ‘전력 이원화 설계’ 등을 통해 제품의 전력 효율을 극대화했다. 고속 동작 시에도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는 ‘파워 게이팅 설계 기법’을 적용해 제품의 동작 안정성도 향상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제품을 연내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고객의 차세대 AI 컴퓨팅 시스템에서 검증 시작해 내년 초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SK이노, 수탁사 개인정보 보호업무 지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위타’ 전파

SK이노베이션이 독자 개발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전체 수탁 협력사에 전파해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업무 강화 지원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자체 보안역량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위탁·수탁 관리 시스템 ‘위타(WeTA: We Trusted Advisor)’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 중 개인정보를 다루는 전체 150여개 수탁사에 전파돼 활용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계약 관리 ▲파기 관리 ▲보호조치 점검 등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위타’에 구현해 수탁사와의 상호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증거자료 관리, 체크리스트 자동 알림 등 위탁사와 수탁사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위탁·수탁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지원으로 협력 수탁사들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관리비용까지 줄이는 등 상생 경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